

고든 학습 이론과 실제 수업에의 적용 방안

현 경 실

차 례

요약

Ⅰ.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

Ⅳ. 실제 수업안에 예

Ⅰ. 서론

Ⅱ. 고든 학습 이론의 수업에의 적용

Ⅴ. 결론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고든 음악 학습 이론을 소개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보이는 것이다. 고든의 학습 이론은 모두 오디에이션(Audiation)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이론이다. 오디에이션이란 '실제로 들리지 않는 음악을 상상을 하여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음악학습의 목표는 학생들이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목표는 오디에이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고든은 학생들의 오디에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음악의 '기본 단어'라 할 수 있는 '패턴'을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패턴을 가르치되 음정과 리듬을 따로따로 가르쳐야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이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도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고든은 학습 과정을 8단계(level)를 정리하였다. 그 8단계는 암기 학습 영역과 추론 학습 영역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암기 학습 영역은 제일 단계의 학습 과정으로서 단순히 배운것을 받아 들이는 과정이며 추론 학습 영역은 암기 학습 단계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새로운 패턴이나 음악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암기 학습에는 듣기/

부르기, 제명/리듬음절로 부르기, 부분적 통합, 악보-읽기/쓰기, 전체적 통합의 5단계가 있다. 추론 학습은 일반화, 창작/즉흥 연주, 이론적인 이해의 3 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각 단계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하나의 수업시간은 크게 일반수업활동(Classroom Activities)과 학습단계활동(Learning Sequence Activities)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수업활동이란 가창 감상 악기 연주등의 일반적인 음악수업 활동을 말하며, 학습단계활동이란 학생들의 순차적인 학습을 위해 리듬 패턴과 음정 패턴을 가르치는 활동이다. 각 수업활동은 8개의 학습단계에 따라 수업의 성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고든 학습 이론의 적용으로 학습 과정의 첫 단계인 듣기/부르기 단계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짜 보았다.

I. 서 론

음악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이 음악을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음악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안에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가 음악 교육의 큰 과제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을 배우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알아낸 것들을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양한 음악교육이론과 학습이론이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되었다. 달크로즈 교수법(The Dalcroze Method), 오르프 접근법(The Orff Approach), 코다이 교수법(The Kodaly Method), 맨하탄빌 음악 과정 프로그램(The 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 고든 음악 학습이론(The Gordon Music Learning Theory), 카라보콘 교수법(The Carabo-Cone Method), 스스키 재능 교육(The Suzuki Talent Education) 등이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이 이론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을 배우는가,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이론화하고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 수업은 대부분 위의 이론들 어느것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위의 이론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거쳐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의 이론들 중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은 다른 이론들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알려지지 않았다. 고든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이론은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중 하나이다. 이 글의 목적은 고든 음악 학습 이론을 소개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보

이는 것이다.

Ⅱ.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은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배우는가를 자세히 관찰 연구하여, 음악을 배우는 과정을 이론화 하여 설명해 놓은 것이다. 고든은 사람이 진정으로 음악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 이론이나 악보 읽기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악은 반드시 소리로 듣고 경험하여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이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도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학습 이론에는 음악을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Gordon, 1988)

1. 오디에이션이란

고든 학습 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오디에이션의 개념 이해가 필수적이다. 고든은 사람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다고 믿는다(Gordon, 1991). 사람이 한 언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언어로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음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음악을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능력이다. 오디에이션(Audiation)은 고든이 만든 용어로서, 음악에서의 '오디에이션'이란 언어에서의 '생각'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오디에이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것과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오디에이션 하는 능력이 많다.

오디에이션이란 '실제로 들리지 않는 음악을 상상을 하여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Gordon, 1988).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고향의 봄' 노래를 상상해 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들리지 않는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 노래를 듣고 있다고 해서 오디에이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듣고 있는 노래를 이해해야 오디에이션을 하는 것이다. 즉 '고향의 봄'이 장조의 곡이고 2박자 계통의 곡이라는것 등을 마음속으로 듣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피아노나 기타로 반주를 한다면 무슨 코드를 써야 할지 등도 안다면 더 높은 차원의 오디에이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를 읽고 쓰는 능력이 오디에이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언어로 생각하는데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오디에이션은 단시간안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되는 기술인 것이다. 어떤 언어로 생각하는 능력이 단 시간에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디에이션은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말은 아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의 다른말로 불려져 왔다. ‘듣는 감지력(Aural perception)’ ‘듣는 상상력(Aural imagery)’ ‘마음속으로 듣기(Inner hearing)’ ‘모방력(Imitation)’ ‘암기력(Memorization)’ 등으로도 불려져 왔다. 그러나, 위의 용어들은 그 개념을 잘 표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듣는 감지력’이란 말은 음을 듣고 감지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현재 음악이 들려올 때 음을 감지한다는 뜻이 강한데서 오디에이션과 다르다. 또, ‘듣는 상상력’이란 말은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 악보를 상상한다는 것과 혼동되기 쉬우며, ‘마음속으로 듣기’ ‘모방력’ ‘암기력’ 등도 오디에이션과는 그 뜻이 다르다. 어떤 외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할 수 있듯이 오디에이션 없이도 따라하거나 어떤 곡을 악기로 연주하거나 외워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음악을 여러가지 음악활동들을 통하여 오디에이션하는 것을 배운다.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기, 또는 음악을 읽거나 쓰기등은 물론이며 그 외의 어떤 음악활동을 통해서도 오디에이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오디에이션이 실제로 소리가 없는데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는 오디에이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나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듯이, 음악을 들으면서나 연주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오디에이션할 수 있다.

고든의 학습 이론은 모두 오디에이션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음악 학습 또는 교육의 목표가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즐기게 하는 것 이라면, 이 목표는 오디에이션 하는 능력이 없이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든의 실제적 음악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오디에이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2. 음악을 어떻게 배우는가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아기는 태어나면서 부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난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까지 몇번이나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까를 상상해 보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

놀랍게도 최근의 연구에서는 아기가 어머니의 배속에 있을 때 이미 대화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ordon, 1991). 또, 생후 여덟달이나 아홉달이 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모국어

의 단어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짧은 단어들은 곧 문장이 되고, 그 후엔 자기 나름의 문장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한다. 태어난 직후 부터 듣고 배우기 시작한 말의 실력이 몇 년 쌓이면 읽고 쓰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말을 할 수 있기전에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힘들뿐만 아니라 별의미도 없다.

음악을 배우는 과정도 말을 배우는 과정과 같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말만큼 음악을 들을 기회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말을 사용하여 자기 표현을 하듯이, 음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음악듣기와 말하기에 해당하는 연주하기를 많이 경험하지 않고 악보 읽기 쓰기를 배우는 것은 말을 못하는 어린이가 글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힘들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 여기서 악보를 읽는다는 뜻은 단순히 음의 이름이나 계명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악보를 이해하고 읽는 것을 말한다. 악보를 읽으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것을 말한다. 즉 악보를 보고 오디에이트 할 수 있음을 뜻한다.

3.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언제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가. 음악을 배우는데는 언어와 같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한 T.V 방송국의 계몽 선전에 이런것이 있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일곱살이 되었는데도 글을 읽지 못한다면 서두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 글을 배우지 못한다면 영원히 글을 못 배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7살이나 8살때 모국어의 읽기와 쓰기를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모국어 읽기 쓰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외국어 읽기 쓰기를 배우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말을 어릴 때 배워야 액센트 없이 배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릴때에 외국에 가서 살 기회가 있었다든지, 한국에 살지만 어릴때 부터 외국인 학교에 다닌다든지 하면 두개의 언어를 다 모국어처럼 말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 배운 외국어는 자기 모국어의 액센트 없이 배우기 힘들다. 어른이 되어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은 30년을 거기서 살아도,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표현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액센트 없이 영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누가 들어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차릴 만큼 자기 모국어의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액센트 없이 본국인처럼 말을 하려면 어릴 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태어나서 부터 9살까지 음악소질은 형성되며 그 후에는 고정된다. 즉 9살까지는 환경과 교육적 영향에 의해 그 소질은 개발되지만 9살이 지나면 음악 소질이 환경이나 교육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다(Gordon, 1987). 그렇게 때문에 9살 이전의 음악 소질을 개발되는 음

악소질(Development Music Aptitude)이라 하며, 9살 이후의 음악 소질을 안정된 음악 소질(Stablized Music Aptitude)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든은 어떤 형태로든 음악 교육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한다. 실제로 고든이 운영하는 음악 학교에는 8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반이 개설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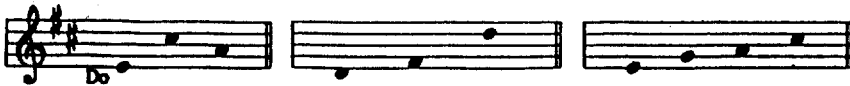
4.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음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는다. 계속 들으면서 이미 들은 소리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동원 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하며, 그 예상이 빗나갔을 경우는 얼른 그 생각을 수정하여 말 하는 사람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

음악을 들을 때도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언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는 단어를 쓰고, 음악은 단어 대신 ‘음정 패턴’과 ‘리듬 패턴’ 등 ‘패턴’을 쓴다는 것이다. 음악을 들을 때도 먼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패턴들을 동원한다. 동시에 다음에 나올 음악도 예상한다. 알고 있는 패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든은 학생들의 오디에이션 능력을 개발하려면 음악의 ‘기본 단어’라 할 수 있는 ‘패턴’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Gordon, 1988). 패턴을 가르치되 음정과 리듬을 따로따로 가르쳐야 효과적이라고 한다. 리듬의 요소가 없는 음정 패턴과 음정의 요소가 없는 리듬 패턴을 가르치는 것이다. 음정과 리듬 패턴의 예는 <악보1>에 나타나 있다.

■ <악보1> 음정과 리듬 패턴의 예

음정패턴



리듬패턴



5. 어떤 단계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순서로 음악을 가르쳐야 할까? 고든 학습 이론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는데는 순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음악을 가르치는데 정해진 순서로 가르쳐야 한다. 고든은 메이슨 (Lowell Mason)이나 스즈키와 마찬가지로 음악은 무엇보다도 먼저 악보가 아닌 '소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고든 학습 이론에서는 음악을 소리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친 후 악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고든은 학습 단계를 8단계로 정리하였다. 그 8단계는 암기 학습 영역과 추론 학습 영역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암기 학습은 교사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며, 추론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가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1) 암기 학습(Discrimination Learning)

암기 학습에는 듣기/부르기, 계명/리듬음절로 부르기, 부분적 통합, 악보-읽기/쓰기, 전체적 통합의 5단계가 있다.

① 듣기/부르기(Aural/Oral)

첫번째 단계인 듣기/부르기는 단순히 음악을 듣고들은 것을 따라 부르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노래 부르기, 음악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등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필수적이다. 또 학생들은 어떤 음악의 으뜸음(Resting Tone)이나 기본박(Macro Beat)을 오디에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부르는 음정 패턴이나 리듬 패턴을 듣고 따라 한다. 여기서 음정 패턴은 '밤밤밤...'으로 리듬 패턴은 '빠빠빠...'의 한 소리로 부른다. 패턴을 듣고 따라 부르기의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 학생이 정확한 음정과 리듬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패턴들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는 개인과 나이의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수 있다.

② 계명/리듬음절로 부르기(Verbal Association)

이 단계에서는 이미 배운 패턴들을 계명/리듬음절로 부른다. 음정 패턴은 이동 도법을 사용한 계명(도,레,미...)으로 부르며, 리듬 패턴은 고든자신이 만든 리듬 음절로 부른다. 리듬 음절의 예는 <악보 2>에 나타나 있다. 이 단계에서도 교사가 패턴을 음절로 부르면 학생들은 듣고 따라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또 장조와 단조 혹은 2박자계와 3박자계등 이름도 배운다.

③ 부분적 통합(Partial Synthesis)

이 단계에서는 이미 배운 패턴들을 그룹으로 듣고 그 성질을 구별한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음정 패턴들을 그룹으로 듣고 그 패턴들이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2개 이상의

리듬 패턴들을 그룹으로 듣고 그 패턴들이 두박자계인지 삼박자계 인지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④ 악보읽기/쓰기(Symbolic Association)

학생들이 패턴들을 듣고 장조인지 단조인지, 두 박자계인지 삼박자계인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써 악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악보를 가르칠 때에도 교사가 학생들이 이미 배운 패턴을 악보를 보며 그 패턴을 부를 때 학생들은 알고 있는 패턴과 악보 읽기를 연결시켜서 배운다. 그후, 학생들은 같은 패턴의 쓰기도 배운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패턴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⑤ 전체적 통합 (Composite Synthesis)

학생들이 알고 있는 패턴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곧 학생들은 알고 있는 패턴들을 그룹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읽은 패턴의 그룹이 음정 패턴일 경우 장조인지 단조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리듬 패턴일 경우는 두박자계인지 삼박자계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악보를 읽는다는 것은 악보를 보고 오디에이트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악보2〉 고든 리듬음절의 예

두박자계

Du Du Du Du De Du De Du De Du De Du De Du Ta De Ta Du Ta Du De De

Du Ta De Du De Ta Du Ta Ta Du De Da Di Du Ta De Ta De Ta De Ta Du Ta

삼박자계

Du Du Du Du Da Di Du Da Di Du Ta Di Du Ta Di Du Ta Di Ta Da Ta

Du Di Du Da Du Ta Da Ta Di Ta Du Ta Ta Ta Du Ta Da Di Du Da Di Ta

Du Ta De Ta Da Ta De Ta Di Ta De Ta Du Da Di Da Di

혼합박자



(2) 추론 학습(Inference Learning)

추론 학습은 일반화, 창작/즉흥 연주, 이론적인 이해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암기 학습과 추론 학습의 다른점은 암기 학습에서는 이미 학습된 패턴을 중심으로 다루고 추론 학습에서는 새로운 패턴을 다룬다는 것이다.

① 일반화 (Generalization)

이 단계에서는 다시 듣기/부르기, 계명/리듬음절로 부르기, 악보읽기/쓰기의 세 단계로 세분된다. 이 세단계는 암기 학습단계에서도 나오나 그 경우는 이미 배운 패턴을 다루지만 여기에서는 배운 패턴이 아닌 새로운 패턴을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면서 이미 배운 패턴과 비교하여 새로운 패턴의 성질을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음정 패턴을 들었을때 이미 배운 패턴과 비교하여 새로운 패턴의 성질을 일반화 시켜 새로운 패턴이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아는 것은 물론, 그 패턴의 계명까지도 일반화 하여 오디에이트하는것이 이 단계에 속한다. 새로운 패턴을 읽는 것은 초견으로 시창하는 것이며, 새로운 패턴을 쓰는 것은 청음 하는것과 같다.

② 창작/즉흥 연주 (Creativity/Improvisation)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패턴과 새로운 패턴을 이용 하여 창작하거나 즉흥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한 음정 패턴을 부르면 학생은 들은 패턴의 성질을 오디에이트 하여 장조이면 장조 패턴을 창작하고, 단조이면 단조 패턴을 창작한다. 읽기와 쓰기도 똑 같은 과정이 요구된다.

③ 이론적 이해(Theoretical Understanding)

이 단계는 고든 학습 이론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도 다시 듣기/부르기, 계명/리듬음절로 부르기, 악보-읽기/쓰기, 세 단계로 세분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음의 이름이라든지 음표의 길이 화음등 일반적인 음악 이론들을 배운다.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무엇을' '어떻게' 등을 위주로 배웠다면 이 단계에서는 '왜'를 배운다.

(3) 건너뛰기 학습(Bridging movement)

이 단계는 고든 학습 이론의 순차적인 단계는 아니다. 위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나가다가 필

요가 있을 때는 잠시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반드시 본래의 단계로 돌아와야 한다. 예를 들면 제 일 단계인 듣기/부르기에서 배운 패턴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잠시 창작/즉흥연주를 시켜볼 수 있다. 도약 학습은 원래의 학습 단계를 더욱 견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지루함을 덜어 주기도 한다.

6.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고든은 위의 학습 순서에 따라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지로 그의 학습 이론 책에 자세히 밝혀 놓았다(Gordon, 1988a). 내용은 크게 음정 부분과 리듬 부분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 있다. 고든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음악을 경험 시켜야 하며 그렇게 때문에 그의 학습 과정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조나 박자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 또 그의 학습 과정에는 음정이나 리듬 패턴이 난이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다음은 고든의 학습 과정 순서의 요약이다.

(1) 음정 학습 과정

고든은 음정 학습은 다음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 ① 장조(Major)와 단조(Minor)
- ② 믹솔리디언(Nixolydin)과 도리언(Dorian)
- ③ 리디언(Lydian)과 프리지언(Phrygian)
- ④ 에이올리언(Aeolian)
- ⑤ 멀티토널(Multitonal)과 멀티키얼(Multikeyal)

멀티토널이란 키(Keyalty)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멜로디가 두개 이상의 조성(Tonality)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악보 3). 멀티키얼이란 조성(Tonality)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멜로디가 두개 이상의 키(Keyalty)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악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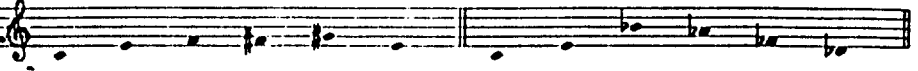
⑥ 폴리토널(Polytonal)과 폴리키얼(Polyk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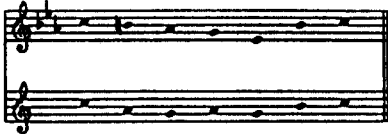
폴리토널이란 두 성부 이상의 멜로디가 동시에 갈 때, 키(Keyalty)는 같은데 조성(Tonality)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악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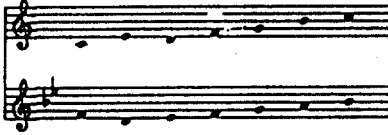
폴리키얼이란 두 성부 이상의 멜로디가 동시에 갈 때, 조성(Tonality)은 같은데 키(Keyalty)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악보3).

■〈악보 3〉 멀티토널 멀티키얼 폴리토널 포리키얼의 예

멀티토널 

멀티키얼 

폴리토널 

폴리키얼 

⑦ 화성

위의 학습 과정에서 첫 단계인 장조를 배운다함은 단순히 장조의 스케일이나 화음등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장조의 음악과 패턴을 듣기부터 시작해서 귀로 먼저 장조를 익히고 난 다음 읽기 쓰기 창작하기등의 순서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장조를 다 배우기는 어렵다. 장조 하나만 완전히 배우려 해도 몇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안하는 학습 순서는 장조와 단조를 완전히 다 가르친후 믹솔리디안과 도리안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인 장조와 단조를 어느 정도 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는 뜻이다. 물론 두번째 단계에 넘어가서도 완전해질때 까지 첫 단계도 계속 학습 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단계도 같은 방법으로 가르친다. 다음의 리듬 학습 과정도 같은 방법으로 가르친다.

(2) 리듬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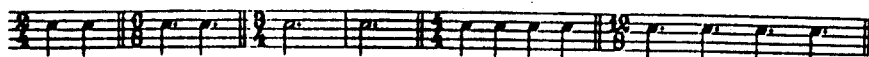
고든은 또 리듬 학습은 다음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① 두박자계(Usual Duple)와 세박자계(Usual Tr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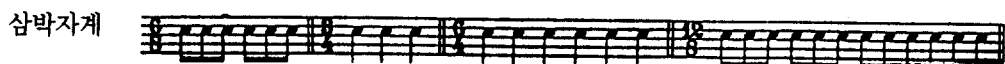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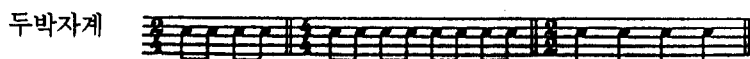
두박자계란 기본박이 둘로 나누어지는 박자로서 2/4, 4/4, 2/2, 4/2등이 있다. 고든이 정의 하는

기본박(Macro Beats)이란 어떤 박자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박으로서 2/4박자의 경우 4분 음표가 되며 6/8박자의 경우 점 4분음표, 2/2박자의 경우 2분음표, 3/4박자의 경우는 점 2분음표가 기본박이 된다(악보 4). 기본박이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작은 단위의 박을 고든은 짧은 박(Micro Beat)이라 한다. 예를 들어 2/4박자의 짧은 박은 8분 음표가 되며, 6/8박자의 경우도 8분 음표가 된다(악보 5). 세박자계란 기본박이 셋으로 나누어 지는 박자로서 3/4, 6/4, 3/8, 6/8, 3/2등이 있다. 이 두박자계와 세박자계에 속하는 박자에서는 매 기본박의 길이와 짧은 박의 길이가 항상 일정된다.

■〈악보 4〉 기본박의 예



■〈악보 5〉 짧은 박의 예



② 혼합 박자(Usual Combined Meter)

혼합 박자란 하나의 기본박이 둘이나 셋중 하나로 일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과 셋으로 번갈아 나누어지는 박자를 말한다. 즉 매 기본박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나 짧은박의 길이는 일정치 않다(악보 6).

■(악보 6) 혼합 박자의 예



③ 특별 박자(Unusual Meter)

특별 박자란 짧은박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나 기본박의 길이는 일정치 않은 박자를 말한다. 5/4

5/8, 7/8박자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멀티메트릭(Multimetric)/멀티템포럴(Multitemporal)

멀티메트릭이란 한 멜로디 안에서 템포는 일정 한데, 박자가 바뀌는 음악을 말하며, 멀티템포란 한 멜로디 안에서 박자는 같은데, 템포가 바뀌는 음악을 말한다(악보 7).

■〈악보 7〉멀티메트릭 멀티템포럴의 예

멀티메트릭

멀티템포럴

⑤ 폴리메트릭(Polymetric)/폴리템포럴(Polytemporal)

폴리메트릭이란 두성부 이상의 동시에 갈 때, 각 성부의 박자가 서로 다른 것이고, 폴리템포럴이란 두성부 이상의 동시에 갈 때, 각 성부의 템포가 서로 다른 음악을 말한다(악보 8)

■〈악보 8〉폴리메트릭 폴리템포럴의 예

폴리메트릭

폴리템포럴

Ⅱ. 고든 학습 이론의 수업에의 적용

고든 학습 이론의 실제 수업 적용을 위해 고든과 우드(Gordon and David Woods, 1986)는 학습

이론에 따라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과서인 점프 라이트 인(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을 발표하였다. 점프 라이트 인 전집에는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과서, 리듬 음정 패턴 카드, 노래 모음집등이 있다. 가이드가 비교적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지도 하면 된다.

고든 학습 이론에 의한 수업시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수업활동(Classroom Activities)과 학습단계활동(Learning Sequence Activities)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수업 활동이란 가창, 감상, 악기 연주등의 일반적인 음악수업 활동을 말하며, 학습 단계 활동이란 학생들의 기본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매 수업 처음에 10분 동안 리듬 패턴과 음정 패턴을 고든 학습 이론에 의해 고든 특유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에서는 음정과 리듬 영역이 따로 따로 다루어지며,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경과를 전부 기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물론 모든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오디에이션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1. 학습 단계 활동

학습 단계 활동 지도 방법의 구체적이 예는 다음과 같다. 패턴에는 두가지가 있다. 학급 패턴(Class Patterns)과 개인 패턴(Individual Patterns)이다. 학습 패턴은 학급 전체가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패턴이고 개인 패턴은 교사가 지정하는 한 학생만이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교사는 모든 학생을 돌아가며 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과를 기록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 패턴에는 각 과정마다 난이도에 따라 어려운 패턴, 중간 패턴, 쉬운 패턴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 학생들의 능력(소질)에 따라 학습 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가 패턴을 부르는 방법도 고든이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Gordon and Woods, 1990c)이 있으나, 여기서 다 소개하지는 않는다.

먼저 교사는 매 학습 단계 활동 처음에 그날에 할 음정이나 리듬 패턴의 종류에 따라 준비 패턴을 여러번 부른다. 준비 패턴(Preparatory Sequence)이란 학생들의 조성감과 박자감 형성을 위해 교사가 부르는 패턴으로 각 조성(Tonality)이나 박자에 따라 그 패턴이 다르다(악보 9, 10). 이 준비 패턴은 학생들의 조성감이나 박자감 형성을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음정이나 리듬 패턴을 오디에이트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물론 음정 학습과 리듬 학습은 반드시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다.

교사는 준비 패턴을 여러번 부른 후 학습 패턴을 1, 2분간 부른다. 학생들이 패턴을 부를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되면 개인 패턴을 부르기 시작한다. 2, 3개의 개인 패턴 후에는 반드시 2, 3개의 학습 패턴이 불러져야 하며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패턴을 부를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음정과 리듬의 학습 패턴과 개인 패턴의 예이다(악보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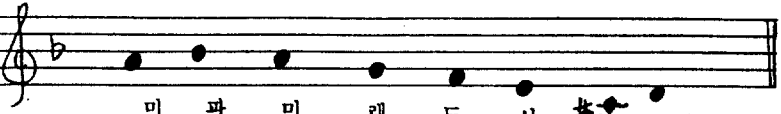
■〈악보 9〉 음정 준비 패턴의 예

장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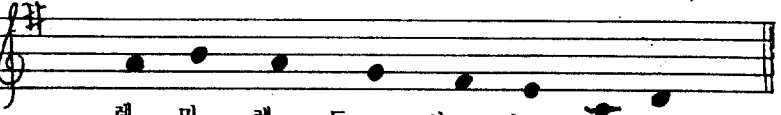
솔 라 솔 파 미 레 시 도

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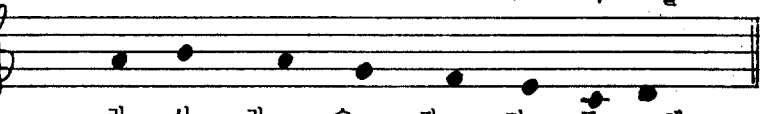
미 파 미 레 도 시 솔 라

믹솔리디안



레 미 레 도 시 라 파 솔

도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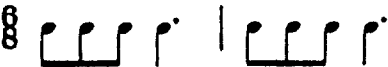
라 시 라 솔 파 미 도 레

■〈악보 19〉 리듬준비패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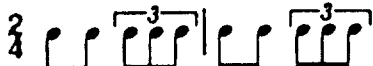
두박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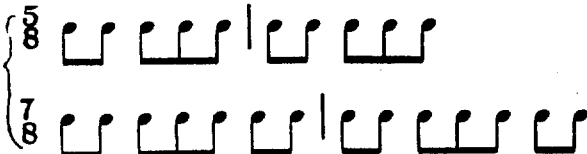
세박자계



혼합박자



특별박자



Ⅲ. 실제 수업안에 예

다음은 고든 학습 이론에 의하여 우리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습 지도안을 짠 것이다. 국민학교 3학년 음악 수업의 예이다. 학생들이 고든 학습 과정의 첫 단계인 듣기/부르기 단계 있다고 가정

하다고 짚는 것이다. 고든 학습 이론을 수업에 적용하고 싶으면 가능한 한 저학년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불가능할 때는 어느 학년에서나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첫 단계인 듣기/부르기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1. 학습 단계 활동(7분간)

■ 음정 패턴(Tonal Unit 1, Section A-악보 11 참조)

- 듣기/부르기 단계

모든 패턴은 라장조로 부른다. 정확한 음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는 피치 파이프나 조율이 잘 된 피아노를 이용하여 음을 잡아 정확하게 패턴을 부른다. 패턴은 반드시 반주 없이 교사의 목소리로 불러야 한다. 사람의 목소리가 학생들이 학습 하는데 가장 좋은 매체이기 때문이다. 또 매 시간 같은 피치로 부르는 것이 학생들의 음정 오디에이션 능력을 가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모든 패턴을 '밤밤밤...'을 사용하여 부른다. 다음은 음정 학습 단계 활동의 구체적인 예이다. 다음 순서중 3, 4, 5번은 나누어서 각기 다른 시간에 실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 2, 3번을 한 시간에 1, 2, 4번을 다음시간에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시간의 여유에 따라 교사가 결정한다.

■ <악보 11> 음정의 화급과 개인 패턴의 예

화급패턴.

Tonal Unit 1 Section A

M (장조)

개인패턴

1M

2M

3M

4M

5M

E. 쉬운패턴
M. 중간패턴
D. 어려운패턴

Copyright 1984 G.I.A. Publications, Inc.

■〈악보 12〉 리듬의 화급과 개인 패턴의 예

화급패턴 Rhythm Unit 3 Section A

(두박자계)

개인패턴

1D E M D

2D E M D

3D E M D

4D E M D

5D E M D

E. 쉬운패턴
M. 중간패턴
D. 어려운패턴

Copyright 1984 G.I.A. Publications, Inc.

(1) 교사 : 장조 준비 패턴을 3, 4번 부른다.

학생 : 준비 패턴을 잘 들으며 오디에이트 한다.

(2) 교사 : 화급 패턴을 약 1분간 계속 하여 부른다.

학생 : 조용히 화급 패턴을 들으며 오디에이트 한다.

(3) 교사 : 화급 패턴을 부른다.

학생 : 교사가 한 화급 패턴을 부르면 그 패턴을 듣고 그 패턴의 처음만 부른다 (패턴을 전부 따라 부르는 것보다 패턴의 첫 음만 부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주의깊게 오디에이션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래서 더 학습 효과가 높다).

(4) 교사 : 화급 패턴을 부른다.

학생 : 교사의 화급패턴을 듣고 그 패턴의 으뜸음을 부른다(여기서는 패턴이 전부 라장조 이므로 'D'음 즉 계이름으로는 '도'가 된다).

(5) 교사 : 화급 패턴을 부른다.

학생 : 화급 패턴을 전부 따라 부른다 (여기서부터 교사의 패턴 선창과 학생들의 따라 부

르기가 계속 되는데, 학급패턴은 학급 전체가, 개인패턴은 지적된 한 학생만이 따라 부른다. 교사는 학습 패턴과 개인 패턴을 적당히 섞어 가며 불러야 학생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패턴 학습을 할 수 있다).

2 일반 수업 활동(30분간)

다음은 가창곡을 가르치는 한 예이다. 모든 과정은 교사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면 여러번 반복 할 수 있다.

■ 재제곡 잠자리(다장조 4/4박자, 악보13)

- (1) 교사 : 오스티나토(Ostinato)를 학생들이 따라할수 있을 때까지 여러번 부른다. (오스티나토 가 길더라도 끊어서 부르면 안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디에이트 하는 능력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한번에 긴 멜로디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멜로디를 짧게 잘라 학생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면 학생들이 오디에이트를 하지 않고 생각없이 모방하기 쉽게 때문이다. 고든은 학생이 진정으로 오디에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긴 멜로디도 문제 없이 따라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생 : 조용히 오디에이트하며 듣는다.(듣기/부르기 단계이기 때문에 악보 없이 듣고 배운다.)

교사 : 학생들에게 오스티나토를 부르게 해 보고 아직 학생들이 잘 못 부를 경우 는 더 여러번 그 멜로디를 들려 주어 익히도록 한다.

- (2) 교사 : 재제곡의 준비패턴(이 곡에서는 다장조)을 부른 후(교사는 학생들의 조성감 형성을 위해 재제곡을 부를 때 마다 곡 처음에 준비패턴을 반드시 부른다.) 재제곡을 ‘밤밤 밤...’을 사용하여 부른다.(재제곡을 가사로 부르면 학생들은 곡의 음악 자체보다도 가사에 관심을 가지므로 가사 없이 멜로디를 처음 부터 끝까지 ‘밤밤밤...’ 만을 사용하여 부른다).

학생 : 조용히 재제곡을 들으며 오디에이트 한다.

- (3) 교사 : 재제곡의 음정 준비패턴을 부른 후 학생들에게 음땀음만을 부르도록 한다.

학생 : 준비패턴을 듣고 음땀음을 부른다.

- (4) 교사 : 재제곡을 다 부른 후 곡 끝에 학생들에게 음땀음만을 부르도록 한다.

학생 : 재제곡을 다 듣고 곡 끝에 음땀음을 부른다.

(5) 교사 : 재제곡을 부르면서 중간 중간 끊어 그때 마다 학생들에게 그 곡의 으뜸음을 부르도록 한다.

학생 : 재제곡 중간 중간 선생님이 원하는 곳마다 으뜸음을 부른다. (학생들은 곡 처음부터 끝까지 으뜸음을 오디에이트 하고 있어야 한다.)

(6) 교사 : 재제곡을 부르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운 오스티나토를 부르게 한다.

학생 : 선생님이 재제곡을 부르는 동안 학생들은 이미 배운 오스티나토를 부른다.

(7) 교사 : 재제곡을 다시 부르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기본박을 오디에이트 하도록 하고, 그 기본박을 두발로 바닥치기, 몸 좌우로 흔들기, 손뼉치기등 몸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학생 : 기본박을 오디에이트 하면서, 그 기본박을 두발로 바닥치기, 몸 좌우로 흔들기, 손뼉치기 등 몸 동작으로 표현한다.

(8) 교사 : 재제곡을 다시 부르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짧은박을 오디에이트 하도록 하고, 그 짧은박을 두손으로 무릎치기, 몸 좌우로 흔들기, 손뼉치기등 몸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학생 : 짧은 박을 오디에이트 하면서, 그 짧은 박을 두손으로 무릎치기, 몸 좌우로 흔들기, 손뼉치기 등 몸 동작으로 표현한다.

(9) 교사 : 재제곡을 다시 부르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기본박을 두발로 바닥을 치면서, 동시에 짧은박은 두 손으로 무릎을 치도록 한다.

학생 : 재제곡을 듣는 동안 기본박은 두발로 바닥을 치면서, 짧은 박은 두 손으로 무릎을 친다. 재제곡을 부를 수 있으면 선생님과 같이 불러도 좋다.

(10) 교사 : 학생들 끼리만 기본박과 짧은박의 몸 동작을 하면서 재제곡을 불러보도록 한다.

학생 : 기본박과 짧은박의 몸 동작을 하면서 재제곡을 부른다.

(11) 교사 : 베이스 파트를 서너번 부른다.

학생 : 베이스 파트를 들어서 익혀 부른다.

교사 : 학생들이 베이스 파트를 부르는 동안 교사는 멜로디를 부른다.

(12) 학생 : 멜로디, 오스티나토, 베이스 파트등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부른다.

(13) 교사 :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오스티나토와 베이스 파트를 부르게 한 다음 교사는 멜로디를 리코더 실로폰등 악기로 연주한다.

학생 : 멜로디, 오스티나토, 베이스 파트등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당한 악기로 연주한다.

(4) 학생 : 재제곡의 악보를 보며 가사로 부른다 (학생들이 재제곡을 듣고 배운 후에는 악보를 보며 불러도 좋다).

■ 〈악보 13〉 잡자리

꽃거리 남아 다니 다 장다피꽃에 밟았다

살 금 살 금 바 록 이 가

꽃 다가 놓쳐 버렸다 꽃 다가 날려 버렸다

Ⅲ. 결 론

고든은 학생들이 음악을 이해 하고 즐기는 능력(Music Appreciation)을 기르는 것이 음악 교육의 기본 목표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을 오디에이션할 수 있어야 하며, 오디에이션 하는 능력 만큼 음악을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 오디에이션 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고든 학습 이론의 주요 골자이다.

음악은 말처럼 듣고 배워야 하며, 음악을 귀로 많이 들은 경험이 있어야 악보 읽기와 쓰기의

학습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다. 또 다양한 음악의 경험이 중요하기에 고든은 우리가 평소에 학교에서나 잘 안 다루는 여러가지 모드나 박자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든 학습 이론은 우리나라에선 다른 교수법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고든 자신은 물론 여러 학자들이 그에 대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어 그 진가가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진 않기에 많은 실험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들의 결과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도입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 Chomsky, Norm.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MIT Press, 1965.
- Mark, Michael L.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New York:Schirmer Books, 1986.
- Gordon, Edwin E.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87
- Gordon, Edwin E. "Guiding Your Child's Musical Development"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91
- Gordon, Edwin E. "Learning Sequences in Music: Skill, Content, and Patterns."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88
- Gordon, Edwin E. and Woods, David G.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Activity Book."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86
- Gordon, Edwin E. and Woods, David G.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Tonal Register Book I."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90a
- Gordon, Edwin E. and Woods, David G.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Rhythm Register Book I."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90b
- Gordon, Edwin E. and Woods, David G.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Reference Hand Book for Using Learning Sequence Activities."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90c

ABSTRACT

Music Learning Theory of Gordon and Its Application to Music Classes

Hyun, kyung-sil

This paper presents music learning theory of Gordon and shows how it can be applied to music classes. The music learning theory of Gordon emphasizes on learning audiation capability. Audiation is hearing in imagination music that is not played in reality. Audiation capability is essential to achieve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that is, the understanding and enjoyment of music. Gordon insists that to develop audiation capability students be taught "patterns" which are "basic words" of music. When teaching patterns, tonal patterns and rhythm patterns should be taught independently of each other, that is, tonal patterns without rhythm aspect and rhythm patterns without tonal aspect. Moreover, Gordon claims that music should be taught in sequence by following eight levels of learning. The eight levels can be grouped into discrimination learning and inference learning. Discrimination learning is rote learning from teachers and inference learning is self-learning by which students derive new knowledge from familiar ones. Discrimination learning consists of aural/oral, verbal association, partial synthesis, symbolic association, composite synthesis. Inference learning consists of generalization, creativity/improvisation, theoretical understanding. The movement from the current level to the next should happen only when the current level of learning is sufficiently achieved. Each music class consists of Learning Sequence Activities and Classroom Activities. The former refers to teaching tonal patterns and rhythm patterns and the latter refers to singing, listening, and performing. Learning Sequence Activities develop skills needed for Classroom Activities. The details of both activiti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s in learning sequence in which they happe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teaching plan created by applying Gordon's learning theory to the aural/oral learning level.